

## 새로운 매체문화시대의 글쓰기와 시조\*

정기철\*\*

### 〈국문초록〉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매체 변화는 시각매체 절대 우위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현대시, 시조 역시 '보는 시'로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추상적 관념과 현학적 표현에 빠져 '그들만의 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위기는 전통(Tradition)을 무시하고 개인의 재능(Individual Talent)만능주의에 빠진 결과이다.

이제, 새로운 시조는 순수 자연과 인간의 몸이 전해주는 신화적·역사적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즉, 생태학적 세계관으로의 과감한 전환과 우리말의 특성을 살린 표현 양식의 복원을 이루어야 한다.

민족의 일상적인 생활과 정신을 담아냈던 시조가 생태학적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컴퓨터매체 변화가 가져온 장점들, 즉 평등·자유·인권·조화·친환경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조의 이 모든 변화는 시조의 전통적인 표현 형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재창조되어야 한다. 시조의 미적 가치는 음성의 조화, 율격, 리듬 등 표현 형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분리와 단절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시각의 본성에서 빠져 나와 조화와 통합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청각의 본성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을 것이며, 적어도 시각과 청각, 문자문화와 음성문화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시각 매체 우위가 가져온 단절·분리·분열·소외·정신병적 증후군 등등의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현대시와 시조, 글쓰기의 병폐를 획기적으로 치료하여 진정한 행복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전통, 통합된 도덕규범, 생태학적 세계관, 주관의 객관화.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남대

## I. 서론

매체가 변화하면 전반적인 사회 구조가 바뀌고 일상적인 생활 양식과 인식 태도, 사유 방식이 달라진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정치·경제의 구조뿐만 아니라, 문학까지도 변화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표현하고 미래 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글쓰기에 대한 고민은 미약하기만 하다.

아직도 글쓰기를 '문자 언어 표현' 정도로만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은 실로 아쉬운 일이다. 글쓰기는 단순히 표현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1차적으로 글쓰기는 의미를 구성하는 사유활동과 그것을 문자로 엮어내는 언어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의미를 구성하는 사유활동'은 개인의 재능(Individual Talent)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 사회의 전통(Tradition)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글쓰기에서 말하는 개인적 재능이란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대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능력, 소재 선택 능력, 감수성 등 개인이 지닌 개별적이고 독창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글쓰기에서 전통이란 보편성의 고정불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승을 통해 변화하고 비약하는 변증법적 질서와 내용종목을 뜻한다.

즉, 글쓰기란 개인의 재능과 전통 속에서 경험과 지식을 재조직하여 내면화하는 활동이며, 그 자체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과정을 통해 더 큰 자아를 획득하는 창조적 언어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글쓰기는 내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세계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다.

매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대의 글쓰기, 글쓰기 교육은 세계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전통 속에서 세계를 내

안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삶과 의미를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글쓰기에 대해 고민하면서 왜 시조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sup>1)</sup> 단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① 전통의 전수와 창조적인 계승을 위해 ② 시가 지니고 있는 세계 인식 능력과 세계를 재구성하는 능력의 함양을 위해 ③ 고전시가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생태주의와 대상에 대한 인식 태도의 복원을 위해 ④ 우리말의 특성과 리듬을 되찾아 시조다운 시조의 창조를 위해, 시조와 시조 교육을 논의하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글쓰기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2)</sup>

하지만, 시조는 ‘민족시’라는 껍질만 남기고 우리 문학사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울 때가 많다. 물론 문학 양식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사유 방식과 대상을 인식하고 향유하는 태도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과 탄생을 반복하는 것이기는 하다. 향가나 고려 속요 등 고전 시가 양식들이 소멸의 길을 걸은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시조는 사정이 다르다. 시조의 위기는 문학 양식의 자연스러운 탄생과 소멸의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시에 대한 무분별한 신

1) 시조의 현대적 계승을 글쓰기와 연계한 논의로는 줄고, 「大韓民報 所載 時調의 형식적 특성과 글쓰기 교육으로서의 含意」(『時調學論叢』 第18輯, 韓國時調學會, 2002)를 참고할 수 있다.

2) 시조의 현대적 계승을 고민한 논문으로는 임종찬, 「現代時調 作品을 통해본 創作上의 문제점 연구」(『時調學論叢』 第12輯, 韓國時調學會, 1996)과 김학성, 「시조의 정체성과 현대적 계승」(『時調學論叢』 第17輯, 韓國時調學會, 2001)을 들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시조 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한창훈의,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월인, 2000), 『시가교육의 가치론』(월인, 200), 권오경의, 『고전시가작품교육론』(月印, 1999) 등에서 볼 수 있다.

봉에 기인한 것이다. 이제 시조는 민족시로서의 생명력과 기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자유시에 시의 중심을 내주고 있다. 시조의 무기력은 시조 연구에 대한 무관심에 따른 것이다. 특히, 현대 시조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고전문학 연구자들은 현대 시조가 현대어로 쓰여졌다는 이유로, 현대 시조 연구자들은 시조가 고전문학의 장르라는 이유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러한 무관심은 시조의 전수와 창조적 계승에 대한 논의 전개를 어렵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조 연구와 시조 교육 연구가 서로 무관하게 진행된 것도 시조 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교육과 떨어진 시조 연구는 미래 지향적인 힘을 갖지 못했고, 연구와 떨어진 교육은 추상적이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내지 못했다. 따라서 시조는 현대 사회의 표현 양식이나 의사소통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박체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제 현대 시조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현대 시조가 어떻게 하면 시조의 전통을 울곧게 전수하면서 창조적인 힘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조 연구와 시조 교육을 동시에 생각하는 논의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야 할 것이다.

## II. 매체 변화와 글쓰기, 그리고 시조

### 2.1 매체변화와 문학, 글쓰기

문자 발명과 매체 변화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구성원의 사유 방식과 생활 형태를 바꾸어 놓았다. 가령, 문자가 없었던 구전 시대와 구전의 관습이 상당히 남아 있던 문자문화 초기에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

의 이야기를 전승하는 일들이 가능했고 또 그러한 일들이 당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기억에 의존하는 구전문화에서는 기념비적이고도 잊기 어려운 인물,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성과 역사성을 띠고 있는 영웅의 출현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즉 영웅은 구전문화의 인지적 체계(noetic economy)를 통해 기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재조직된 당대인의 경험과 삶이었다.

그러나 문자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구전문화의 인식 구조와 삶의 방식은 변화하여 영웅의 출현은 희박해지고 일상적인 인간, 일상의 삶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문자문화의 이러한 현상은 매체의 변화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필사문화시대 → 목판문화시대 → 활자(활판)문화시대를 지나 본격적인 인쇄문화시대를 거치면서 그 사회의 지식과 정보를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 중심의 근대의식이 발현되었다.

하지만, 인쇄문화시대에도 문자 권력은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 인쇄술의 발전이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키고 귀족 중심의 통치 구조를 붕괴시켜 민주주의의 시발점을 열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이 가져온 대다수의 의사소통 구조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의식을 창출해냈고, 대중의 의식과 욕망이 사회구조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쇄문화시대에도 고급 문자문화를 소유한 사람들의 권력이 엄연히 존재하였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인쇄매체를 권력의 도구 삼아 권력을 위해 인쇄매체를 통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컴퓨터문화시대에는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고 있다. 컴퓨터문화시대에는 정보가 자본의 위치를 대신하고 노동 생산을 재화의 생산에서 정보의 생산으로 변화시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 양식은 표준화, 분업화, 중심화, 분업화, 수직화, 대중화, 연속성의 특징을 갖는

다면, 컴퓨터가 세워놓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개별화, 분권화, 공동화, 수평화, 전문화, 단절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생산구조 역시 변화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구조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구조였다면, 지식정보화 사회의 생산구조는 맞춤 생산, 일대일 소비(one and one system)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에서도 컴퓨터 세대들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문학에서도 인터넷 문학이 위력을 떨치고 있다. 초기의 인터넷 문학은 젊은 세대들의 취미생활 정도로 취급을 받았다. 즉, 정상적인 세계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경계 밖 글쓰기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 문학은 온라인 안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위력을 떨치고 있으며 경계와 경계를 허무는 글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인터넷 문학의 한계성을 들어서 인쇄 매체를 통한 문학이 계속해서 문학의 본령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말은 현실 상황에서 매우 슬픈 위안의 말로 들릴 뿐이다. 이미 인쇄 매체를 통한 문학은 인터넷 문학의 보조 수단이나 인터넷 문학 활동 모임집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sup>3)</sup> 앞으로 노트북의 경량화, 휴대폰 문자 메일 용량의 극대화, PDP 사용의 일반화가 진행되면 인쇄 매체를 통한 문학 활동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문학을 위협하는 또 한가지 요소는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실증주의다. 실증주의가 현대사회를 이룩했고, 현대사회는 어느 정도 인류가 염원하던 근대정신의 구현을 달성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

3) 인터넷에서 호응을 얻은 작품들을 인쇄하거나 영화화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일부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인터넷에 올려 독자들의 반응을 살핀 다음 인쇄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을 출판사가 작가들에게 권하거나 요구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문학 동호인들의 활동이 오프라인 문학 동호인들의 활동을 앞서고 있다.

그리고 이 실증주의는 미래사회에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삶을 통제할 것이며, 인간은 과학을 더욱더 맹신할 것이다.<sup>4)</sup>

물론 그럴수록 문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하다.

21세기초에도 과학의 기치는 더 높아질 것이고 인문학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위기에 몰릴 것이다. 그 속에서 문학은 과학의 반대편에서 혹은 새로운 공생의 방법으로 존재할 것이다. 또한 거대한 자본과 맞물린 문학 시장은 문학을 문화라는 명목 하에 값싸게 상품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와 민족을 넘나드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축은 어쩌면 민족성과 문화의 고유성을 쉽게 허물어낼지도 모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국어와 문학은 오히려 제자리를 탄탄히 잡을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또한 그런 기회가 많이 올 것으로 보인다. 미래학자들도 새로운 문화 르네상스가 극단의 과학문화의 반대급부로 전개되리라 기대한다. 기계에 의존하는 비인간화의 심화 현상이 의사표현이나 문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sup>5)</sup>

그러나 문학이 과학의 반대급부로 전개될 것이라든지, 과학적 질서의 사회를 상상력 질서의 세계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래 사회에서도 인문학의 위기와 과학 문화의 팽창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세계화는 많은 사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학과 글쓰기의 고유성을 계속 침범할 것이 분명하다.

사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이렇다할 문학 이론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포스트모더니즘은 탈인간(백인), 탈이성, 탈서양을 기치로 내걸어 상당 기간동안 문학과 문학 이론을 이끌었다. 하지만 탈

4) 최근 '즐거 세포', '배아 복제'와 같은 신드롬은 인간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학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과학 만능, 과학 맹신주의를 낳을 우려가 있다.

5) 권오경, 『고전시가작품교육론』, 月印, 1999, 46-47쪽.

인간, 탈이성, 탈서양 이후의 새로운 가치체계와 이념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간혹 민족주의 문학론이나 고전주의 이념들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새로운 가치체계와 이념이 된다거나 자양분이 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비록 그들이 역사적으로 풍부한 정신을 쌓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정신을 구체적인 방법론과 접목하지 않는 한 새로운 문학과 글쓰기의 지향점이 되거나 지향점을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체계와 이념이 될만한 자양분을 모으고 그 자양분을 바탕으로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문학과 글쓰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매체 변화에 따른 문학, 또는 문학 환경 변화 속에서 시조의 전통성과 문학성을 확보하는 일이며, 그 전통성과 문학성을 어떻게 미래를 향해 열어 놓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 2. 2 새로운 시대의 문학과 글쓰기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문학을 잃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 글쓰기를 잃었다는 것을 뜻한다. 문학과 글쓰기가 동일한 활동이었던 전통은 사라지고 문학과 글쓰기를 별개의 영역처럼 여기면서 문학과 글쓰기가 동시에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그 동안 문학은 서양적 심미주의에 가치를 두고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삶과 정서를 외면한 결과 새로운 심미적 가치를 세우지 못했다.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삶과 민족의 정서를 전수하고 형상화하는 것을 외면하고 철저히 개인적인 정서와 사상을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문학은 일상적인 삶과 멀어지면서 그들만의 문학이 되었다.

문학과 결별한 글쓰기 역시 황폐해졌다. 글쓰기는 문학과 결별하면서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을 잃고 미문(美文)의 욕망에 빠져 전통을 세우



는 일을 등한시했으며 통합된 도덕적 규범을 지켜내지도 못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세계를 주관적인 정신적 체계로 해석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이다. 따라서 글쓰기는 주관의 정신적 태도(Mental set)와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틀인 언어가 주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과 글쓰기가 결별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의식과 보편적인 삶에 대한 신념들이 무너지고 말았다. 전통을 잃음으로써 가치와 신념을 잃었고, 언어를 잃어버림으로써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잃게 되었다. 그 결과 매체 변화와 시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전통을 전수하지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지도 못하고 말았다.

새로운 시대의 문학과 글쓰기를 위해서 우선 문학과 글쓰기가 다시 만나야 한다. 글쓰기는 문학과와의 만남을 통해서 신화적·역사적 상상력을 복원해야 하며, 문학은 글쓰기와의 만남을 통해서 일상성과 통합된 도덕적 규범을 확보해야 한다.

글쓰기와 문학은 차이점과 같은 점을 동시에 갖는다. 우선, 일반 글쓰기와 문학 창작간에는 엄연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 이 다른 점이 일반 글과 문학을 구분하는 잣대가 되고, 동시에 글의 갈래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에 대한 인식과 상상력, 언어의 조탁, 구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글쓰기와 문학은 동일하다.

글쓰기와 문학을 동일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둘 모두 언어를 매개로 한다는 근원적인 속성 때문이다. 글쓰기와 문학 모두 랑그와 빠롤의 이원적 구조를 지닌 언어의 속성 안에서 배태한 것이고, 이러한 언어 구조의 속성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학의 그러한 본질은 기본적으로 언어 구조물이라는 자질에서 온다. 언어란 직접적인 사물이 아니라 간접적인 기호이므로 언어가 지닌 대리물적 본질

에 의해 인간을 사고하도록 한다. 그 반대되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시각 매체에 사로잡힌 아이들에게서 상상력의 빈곤을 확인하게 되는 일은 슬픈 일이며, 그것을 구제하는 일은 언어의 세계에서 정신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중략)

문학이 형상이라는 본질은 인간의 인식 능력과 상상력이라는 기본적인 정신 활동의 본령이다. 사람은 언어로 형상을 수용하고 언어로 형상을 창조한다. 그 가장 전형적이고 체계적이면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문학이다. 따라서 인간은 문학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고 창조한다. 인간의 인간다운 덕목 가운데 지성과 감성은 이러한 형상을 통해 함양되고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sup>6)</sup>

간접적인 기호인 언어가 갖는 대리물적 특성을 통해 인간의 사고를 형상화하는 것이 글쓰기와 문학의 본령이라 할 때, 문학이 추구하는 인간, 인간다움 역시 글쓰기에서 추구하는 인간, 인간다움과 수평적으로 교감할 때 비로소 참 인간과 인간다움을 획득하고 형성할 수 있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문학과 글쓰기는 모두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라는 깨달음이 필요하다. 즉, 글이란 작가와 독자의 대화를 활성화하는 매개물이며, 글쓰기는 작가와 독자의 창조적 대화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글이란 완성된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작가와 독자간의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따라서 글쓰기는 대상을 통한, 대상에 대한 자아의 관념과 태도를 형상화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문학이 구체적인 설명이거나 거침없는 주장이 아니고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적 형상화이긴 하지만, 문학 역시 사회 구성원인 작가가 시대 상황 속에서 일정 부분 사회적 담론을 담아낸 것이다.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문학 역시 목적에 의해 구체화한다. 글을 쓰다가 혹은, 글을 쓰고 난 후 수정과 첨삭을 하게 되는 데 이는 글쓰는 목

6) 김대행, 『문학교육 틀짜기』, 역락, 2000, 114-115쪽.

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수정과 침삭을 표현 기법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독자에게 작가의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행위의 일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수정과 침삭은 작가의 주관적 세계관을 독자의 주관적 세계관에 밀착시키기 위한 행위이다. 이를 다시 주관의 객관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주관의 객관화 과정을 통해 작가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자기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사실 좋은 문학 작품은 시대 상황과 작가의 세계관 사이에 상호 교호적인 작용이 이루어질 때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문학과 글쓰기는 세계관 형성과 독자와 상호 교호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어야 한다. 결국, 문학과 글쓰기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가의 세계관(주관)을 독자의 세계관(객관)에 끊임없이 근접시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과 글쓰기의 중심에는, 글쓰기를 통해 대상(세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또 다른 자아를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 2.3 새로운 시대의 글쓰기와 시조

문학이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라는 논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시조 또한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라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조는 우리 민족의 민족시로서 과거와 현재, 선인들과 현대인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매체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시대의 글쓰기와 시조를 같이 논의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이다.

주지하다시피, 시조는 유일하게 현대까지 계승해온 우리 민족 고유의 민족시이다. 따라서 시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전통은 새로운 시대의

시조와 글쓰기의 중심 내용이며 가장 핵심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전통이란 과거성을 지니면서도 미래를 수용하고 미래를 건설하는 힘을 말한다. 즉, 전통이란 현재 혹은 미래가 역사적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시조는 이제까지 시조문학이 지켜온 전통을 되살려야 하며, 글쓰기는 시조가 이룩해 온 전통 속에서 신화적 상상력과 역사적 상상력을 복원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사는 현대인들이 겪는 병증(病症)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이며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조와 글쓰기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조의 3장이 지니고 있는 원리를 새로운 시대의 글쓰기에 접목해야하는 필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조는 3장의 틀을 500년이 넘도록 유지하였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였다.

김대행은 시조의 초·중·종장이 '대상 - 관계 - 의미'의 연결인 OMR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다시 대상(O-R)과 주체(M)로 양분되어 시가의 기본적 속성이 대상과 주체의 병렬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sup>7)</sup> 이영지는 시조 3장의 의미를 한정된 시간 속에서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사는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찾았다. 그는 3장의 시조 형식이 500여 년 동안 반복된 것은 365일 반복되는 삶과 관련이 있으며, 3장 형식은 하늘, 땅, 인간이라는 3등분된 우주의 구조에서 찾았다. 그리고 시조의 초·중·종장을 이끌어 가는 힘은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일상 생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였다.<sup>8)</sup> 원용문은 훈민정음의 창제, 제사차림, 태극기 등이 동양철학(성리학)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면서 시

7) 金大幸, 「時調形式의 意味」, 『時調學論叢』第11輯, 韓國時調學會, 1995.

8) 이영지, 「시조창작론 - '물'과 '불'의 시조 창작적 一例」, 『새국어교육』52, 새국어교육학회, 1996, 425쪽.

조의 3장 6구 12마디의 형식도 易學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sup>9)</sup>

이들 논의의 공통점은, 시조의 형식이 민족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삶을 지탱하고 형성하는 사유와 관습의 원리, 근원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시조 형식이 지니고 있는 ‘일상적인 삶’, ‘사유와 관습의 원리, 근원’ 등과 같은 속성들은 현대사회의 시와 글쓰기의 병폐를 획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즉, ① 주제를 밝히기 수월하고 ② 창작 배경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고 ③ 길이가 짧아 고쳐 쓰기 활동에 적합하고 ④ 다른 장르나 일상적인 언어 형상과 연관 짓기 쉽다<sup>10)</sup>는 특성들도 시조 교육을 통한 글쓰기 교육의 필연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새로운 시조의 기반과 원리

매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조<sup>11)</sup>를 논의할 때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

9) 원용문, 「시조의 형성 원리」, 『時調學論叢』 第17輯, 韓國時調學會, 2001.

원용문은 3장은 天地人 3재에서 시작되었으며 12마디는 절기의 12개월을 상징한다 하였다. 그래서 초장에서 시상이 시작되고 중장에서 그 시상을 이어 받아 발전시키고 종장에서는 최상의 상태를 이루면서 결말을 맺는다고 하였다. 시조에서 구의 의미도 제1구는 시상이 시작되는 곳이니 가장 미미하고, 제2구에서는 그 시상이 발전 상승되고, 제3구, 제4구에서 고조시키다가, 종장의 앞구인 제5구에서 절정기를 맞고, 제6구에서 완결 짓는 순차적인 원리에서 찾았다.

10) 姜明慧, 「時調教育의 현황과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 『時調學論叢』 第20輯, 韓國時調學會, 2004. 참고.

姜명혜는 이 4가지 특성 외 시조가 현대까지 이어지며 지속된다는 점을 들어 시조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더불어 학습자 활동 중심의 시조 교육을 구안하였다.

11) ‘현대시조’라 하지 않고 ‘새로운 시조’라 하는 이유는 본고에서 제시할 시조의 모습과 몇몇 논란거리를 지닌 현대시조와 구분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다.

르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논의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새로운 시조가 시조를 시조답게 하면서도 창조성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조를 시조답게 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창의성을 담을 수 있는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시조가 일상적인 삶과 정서를 담았다는 것이다. 시조의 3장 형식은 그것을 '天·地·人'으로 해석하든 '아침·점심·저녁'으로 해석하든 아니면 '易學'에 근원을 둔 것으로 이해하든 일상적인 삶과 보편적인 삶의 철학과 원리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4음보 율격의 리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 언어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살리면서도 민족의 정서와 친근한 4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음악에 붙이고 리듬을 창출해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을 시조의 내용과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과 형식은 모든 문학 장르와 글쓰기에서 가장 근본이다. 따라서 본고에선 논의의 집약을 위해, 또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선명하게 위해 새로운 시조가 담아야 할 내용과 그것을 풀어내는 형식, 두 가지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 3. 1 생태학적 세계관

한국 시사(詩史)를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중심 화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종교가 중심 화두였으며 개인의 애정이, 자연 예찬이, 횡포를 부리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이, 억눌린 여성의 삶이 화두가 되었다. 경기체가나 악장 같은 특수 집단과 왕권에 대한 자족과 찬양의 노래가 있었지만 그들은 단명하고 말았다.

시대에 따른 중심 화두가 있었다는 것과 특수 집단을 위한 노래들이 단명했다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나는 시가가

당대인이 겪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담론을 형성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뛰어넘으려고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득권 세력이나 사회를 이끄는 사상에 비판적이며 동시에 다분히 서민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내적인 정서와 주관적인 인식 태도에 의한 대상의 형상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시는 공공적 가치와 교육적 목적, 또는 맹목적인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그것들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끊임 없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시 역시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삶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으며 정치·사회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계를 통해 나름의 목소리를 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시는 끊임없이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기득권 세력이나 사상, 환경에 대해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여 삶의 조건과 입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에 화답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조의 화두는 무엇인가. 그것은 앞으로 인간의 삶과 문학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의 강하는 물론이고 바다도 썩어가고 있다. 피보다 진하다는 성스러운 물이 썩어갈 때 우리는 다시 소생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신화비평은 생태비평과도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공해 물질에 가리운 달은 더 이상 달 본연의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원왕생가」나 「찬기파랑가」에 나오는 달과 현대 매연이 뿌영계 낀 도시의 달은 전혀 다른 달로 인식된다. 작렬하는 태양마저도 공해 속의 도심에서는 그 빛을 잃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다. 그 속에서 인간이 죽어가고 시인 역시 죽어간다면 이 대지에는 비가(悲歌)마저 사라지고 음울한 독수리의 울음소리만 가득할 것이다. 사막의 열풍이 회오리치는 대지는 더 이상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시인과 작가는 이러한 암울한 현상의 심연에서 솟아올라야 한다.<sup>12)</sup>

12) 김병욱, 「문학과 신화」(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제9회 전국학술발표대회 발표요지 별지) 7-8쪽.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시의 중요한 화두는 생태주의였다. 생태주의는 인간끼리의 관계나 자연과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정복으로 이루어진 인류역사에 대한 반성과 회의에서 시작하였다.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 준 과학문명은 인간에 의한 자연 정복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복의 이념과 과학적 자연관을 통틀어 인간주체중심주의, 또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중심적 세계관은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를 일으켰고 인류의 멸망과 지구의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발과 발전의 논리가 가져다준 '소외'는 현대인의 삶을 본질적으로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생태주의는 철학적, 사회적, 정치적 담론을 일으키면서 현대사회의 가장 전위적인 문화운동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문학에서도 몇몇 시인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생태주의에 관한 시를 발표해왔다. 시인들이 생태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로 형상화하는 일은 시의 고향이 자연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sup>13)</sup> 그러나 시가 생태주의를 화두로 현대인의 삶을 치료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으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의 전환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현대사회가 직면한 절박한 문제의 근본적인 바탕에는 정복과 과학적 자연관으로 표현된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존재한다면 그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만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연은 인간이 필요에 따라 취하거나 정복할 수 있는 자원이나 도구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근원적 모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 역시 정복과 탈취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할 권리를

13) 이런 점에서 시조학회가 “생태주의 문학으로서의 시조”라는 주제로 전국학술 발표대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전향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갖고 있으며, 인간의 삶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즐겨 써오던 발전과 진보의 개념 역시 달라져야 한다. 진정한 발전과 진보는 정복과 탈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다른 것과의 화해와 조화 속에서 공존하는 도덕적 태도와 그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달성되는 것이다.

시조가 진정한 생태학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는 순수한 자연을 복원하여야 한다. 순수한 자연이란 인간의 관념을 대입하거나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한 형상화의 소재적 대상으로 삼지 않는 자연 그 자체를 말한다.

시조에서 자연의 위상은 매우 각별하다.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의 편수 자체가 의미의 질량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이 시조의 소재적 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시조 시인들의 실존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차대한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시조에서 자연은 세상의 지배원리이기도 하고, 미적 존재이기도 하며, 현실의 반대항에 위치해 있는 피안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극복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시조에서 자연은 매우 넓은 가치의 스펙트럼을 가진다. 그러나 굳이 실증적인 계산에 기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을 대하는 시조 시인들의 태도가 대체로 상찬(賞讚)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그것은 오히려 상투적일 정도로 보편화된 관습이다.<sup>14)</sup>

시조에서 자연은 다양한 모습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자연 속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은 조선조 유학자들의 삶의 철학이자 형상화 방식의 한 유형이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시조에 나타난 대다수의 자연은 생태주의적 세계관을 담은 순수 자연이 아니라 유학자들의 관념을 확인하고 확고히 하는 기재로 사용되거

14) 류수열, 「시조의 자연, 그 '말없음'의 의미론」, 『時調學論叢』第20輯, 韓國時調學會, 2004, 6쪽.

나 정치·사회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가) 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興이 절로 난다

濁醪溪邊에 錦鱗魚 安酒 | 로다

이 몸이 閑暇허음도 亦君恩이샷다

(孟思誠, 「江湖四時歌」中)

(나) 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르더니

誅茅卜居호니 벗님너 다 오신다

어즈버 武夷를 想像호고 學朱子를 호리라

(李珣, 「高山九曲歌」中)

(가)는 자연 속에서 풍요롭고 여유 있게 지내는 것은 다 인군의 은혜라며 정치적 욕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자연 속에서 기거하면서 무이와 주자를 숭상하고 배우겠다며 시적 화자의 관념에 대한 확인과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많은 자연 시조들이 순수 자연이 아닌 시적 화자의 관념과 정치·사회적인 욕망을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자연을 형상화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학적 세계관을 담을 시조는 순수 자연이 주체가 되는 시조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복과 복종, 훼손과 파괴를 개발과 진보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을 근원적으로 치료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진정한 행복과 발전을 획득할 수 있다. 진정한 행복과 발전은 인간의 생물학적 욕망의 이기적 충족이 아니라 오히려 생물학적 욕망을 극복해 다른 것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다름의 공존 속에서 통합된 도덕 규범을 이루고 실천적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민족의 일상적인 생활과 정신을 담아냈던 시조가 생태학적 세계관으

로 전환함으로써 매체 변화가 가져온 장점들, 즉 평등·자유·인권·조화·친환경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야 시조의 세계관이 글쓰기의 세계관으로 이어져 모든 인간 관계와 사유 방식의 내면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생태학적 세계관이 인간 관계에도 빠르게 적용되어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본주의 이념이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전체주의 이념을 몰아내고 진정한 행복과 발전, 진보를 이룰 수 있다.

#### 4. 2 음악, 음성언어와의 뜻깊은 해후

최근 매체문화의 관심은 시각매체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형식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대응 방식은 전통형식을 시각적으로 재조직하여 시각매체 문화에 적절히 적응하려는 태도와 전통 형식을 고수하려는 태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시조에서도 시각매체 문화에 적응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시조의 시행 배열의 개성과 자유로움을 획득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현대 시조들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따끈한 찻잔  
감싸쥐고

지금은 비가 와서

부르르  
온기에 떨며

그대는 여기 없으니

백매화  
꽃잎 지듯이

바람 불고 날이 차다.

(홍성란, 「바람불고」)<sup>15)</sup>

그 동안 현대 시조의 시행 배열에 관해 적잖은 고민을 해왔다. 시조의 양식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성과 자유로움을 표현해야 한다면, 전통적인 양식을 좀더 고려해야 한다면, 시행의 자유로운 변형을 통해 시각적인 창의성을 표현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제기되었다.<sup>16)</sup> 뿐만 아니라, 시조의 미적 가치를 음성의 조화, 율격, 리듬 등 표현 형식에서 찾고자 하여 시조 낭송법을 콘텐츠화하려는 시도와 시조의 낭송법과 외국 정형시의 낭송법을 비교 고찰하는 논의들도 이루어졌다.<sup>17)</sup>

그러나 시조의 시행 배열에 대한 고민과 전통적 표현 양식에 대한 논의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시조의 시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조의 시각화는 매체문화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각매체 절대 우위 속에서 전통적인 문학 양식인 시조마저 시각화의 방향으로 치닫는 것이 과연 옳은가

---

15) 홍성란은 증견 시조작가이다. 【문학사상】 2004년 6월호에 모두 4편의 시조를 발표하였는데, 4편 모두 다양한 시조 형식을 시험하고 있다.

16) 시조의 시행 배열에 관한 최근의 논의로는, 김학성, 「시조의 정체성과 현대적 계승」, 『時調學論叢』 第17輯, 韓國時調學會, 2001), 줄고, 「大韓民報 所載 時調의 형식적 특성과 글쓰기 교육으로서의 함의」, 『時調學論叢』 第18輯, 韓國時調學會, 2002), 류해춘, 「한국 시조문학의 존립 기반과 그 본질에 관한 시고」, 『時調學論叢』 第19輯, 韓國時調學會, 2003) 등이 있다.

17) 이찬욱, 「時調 朗誦의 콘텐츠화 研究」, 『時調學論叢』 第19輯, 韓國時調學會, 2003. 이산호, 「콘텐츠를 위한 한·불 정형시가 낭송법의 비교 고찰」, 『時調學論叢』 第17輯, 韓國時調學會, 2001.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시조의 시각화는, 현대 시조가 부르는 노래, 또는 읊는 노래에서 '보는 시'로 변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조가 보는 시로 변환한다는 것은, 시조의 언어가 음성언어 위주에서 문자언어 위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다시 시조가 말로 구현되는 정서보다는 글로 구현되는 정신세계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현상은 시조의 전통과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 이 물음은 단지 시조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한국 현대시를 위한 근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

고전문학에서는 운문 형식의 고전시를 '시가(詩歌)'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이는 고전시는 어떠한 형태이든 노래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자언어에 대한 권력이 엄연히 존재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상류층은 문자언어로 시를 짓고 하층민은 음성언어로 노래하는 것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저급한 문학 행위라는 인식이 시와 노래를 전혀 별개의 장르로 만들었던 것이다.

노래와 시를 별개의 장르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의 일이다. 서양의 자유시가 등장하면서 시와 노래의 결별은 바르게 진행되었다. 자유시의 등장에도 한동안 노래와 시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시기에 시나 시조를 서양의 곡조에 붙이거나 새로운 작곡을 통해 노래로 불렀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준다. 그러나 해외 유학과 문인들이 문단의 중심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시와 노래의 결별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시를 통해 문자 권력을 누렸다.

문제는, 당시의 문인들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와 리듬으로 시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우리 시이고 노래임을 외면하고 자유시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데 있다.

해와 / 하늘빛이 / 문둥이는 / 서러워 //  
보리밭에 / 달 뜨면 / 애가 하나 / 먹고 //  
꽃처럼 / 붉은 울음을 / 밤새 / 울었다 //18)

위 시는 4음보, 3장, 종장 첫 음보 3자와 둘째 음보 5자까지 평시조 형식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시는 시조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자유시로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민병기<sup>19)</sup>는 시조 가락을 지닌 그 많은 자유시들이 시조로 발표했다면 오늘날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반문하면서, 시조보다 자유시는 새 시대의 장르요, 화려하게 각광받는 장르라는 고정관념이 만들어 낸 오류의 결과라고 하였다.

이는 일정 부분 자수의 제한을 받는 시조보다는 자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시의 매력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고정 관념은 시조를 자수 중심의 시라는 편견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시조를 포함한 민족시는 음보, 즉 4음보 중심의 노래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수에 연연하는 고정 관념이 시조의 발전과 보급에 늘 걸림돌이 되었다.

시조 역시 4음보 중심의 노래라는 인식은 시조와 음악의 행복한 해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사실, 시와 노래의 만남은 동서고금을 통해

---

18) 서정주의 「문둥이」의 원래 표현은 아래와 같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가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19) 민병기, 「현대시와 전통율격」(박노준·이창민 외, 『현대시의 전통과 창조』, 열화당, 1998), 47-48쪽 참고.

줄기차게 시도되었다.

한시가 율시나 절구라는 형식을 개발하여 고저의 평-측(平仄)을 가지고 시의 리듬을 삼는다든지, 영시가 강-약(強弱)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시의 정형을 만들고 리듬을 구현하고자 한다든지, 일본이 7-5의 음절수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시형을 바꾸어 가면서 리듬을 살려 보고자 한 것은 잃어버린 노래의 꿈을 어떻게든지 다시 이루어 보려는 안간힘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20)</sup>

이러한 시도는 시가 노래와 결별하고 문자언어만으로 시정신을 구현하려고 할 때 생기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시가 노래와 결별하고 문자언어만으로 시정신을 구현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점은 일일이 다 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노래와 결별한 뒤 현대시가 겪는 고초에서도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시와 노래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시와 노래는 별개이며 노래는 하층민의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줄곧 둘의 만남은 실패하고 말았다. 시조 역시 시조창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노래(리듬)와 결별하고 빠르게 보는 시로 변모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시조창은 전문적인 악공이 필요한 가곡창과는 달리,<sup>21)</sup> 악기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서민의 향유 방식이었으며, 아울러 서민들의 호흥과도 일치하여 즉흥적인 감흥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표현할 수

20) 김대행, 『노래와 시의 세계』, 도서출판 역락, 1999, 11쪽.

21) 권영민은 「시조의 시적 형식과 그 창곡의 음악적 형식과 상호 관계」(『韓國學報』 12집, 1978, 80쪽 참조)에서 가곡창과 시조창의 다른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가곡창과는 달리 전·후주곡과 간주곡에 해당하는 대여음과 중여음이 생략되었다.
- (2) 모두 293박의 가곡창에 비해 시조창은 94박으로 매우 빠르다.
- (3) 5장인 가곡창과는 달리 3장 분장이다.
- (4) 시조창은 가곡창의 5장 끝부분(시조로 치면 12번째 마디)이 생략되었다.

있었다. 특히, 시조창이 가곡창과 달리 전·후주곡과 간주곡에 해당하는 대여음과 중여음을 생략하였다는 것은 시조를 음악 중심이 아니라 우리말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리듬에 있어 향유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새로운 시조는 우리말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리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좀더 자유로운 형식을 찾는다면, 옛시조와 사설시조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근대 서민의식을 무난히 담아낸 시조 양식이다.

일반적으로 사설시조는 많은 경험이나 대상에 대한 묘사, 대상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하여 구를 거듭해 나가거나 마디를 늘여나간다. 그러면서 동시에 평시조가 지니고 있는 음악적 리듬을 깨게 된다. 즉, 가곡창이나 시조창을 하면서 소리를 길게 빼는 대신 여러 마디를 축급하게 넣었다. 따라서 사설시조는 민요의 자유로운 형식과 그에 따른 정서를 긍정적으로 계승하고, 평시조의 격조를 부정적으로 계승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22)</sup> 따라서 사설시조의 형식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정신과 창조성을 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살린, 4음보·리듬을 구현하기 위한 정형·일상적인 말(음성언어)의 사용 등, 시조가 지닌 표현 양식 안에서도 충분히 시대정신과 창조성·실험 정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러한 시조의 표현 특성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매체 변화가 불러일으킨 현대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각 매체 우위가 가져온 단절·분리·분열·소외·정신병적 증후군 등등의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은 분리하고 청각은 통합한다. 시각의 전형적인 이상은 명료성과

2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9, 291-292쪽 참조.



명확성을 추구하는 나누어 보기인 반면, 청각의 이상은 통합과 조화를 추구하는 종합적 듣기이다. 우리는 잘 보기 위해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시선을 이동하여 부분 부분을 토막내어야 한다. 반면 잘 듣기 위해선 눈을 감고 집중하여 모든 방향에서 물려오는 소리에 잠긴다.

시각과 청각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기를 중심으로 한 문자문화는 분석적이고 추론적이며 종속적이고, 듣기를 중심으로 한 음성문화는 통합적이며 구체적인 일상성을 띠고 조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문자문화가 일으킨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대안을 음성문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시에 적용하면 보는 시가 가져온 현대시의 고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말의 리듬과 일상적인 말을 효과적으로 살려온 시조의 전통에 있으며, 그 안에서 창조와 실험정신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시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글쓰기가 현대사회가 지닌 단절·분리가 가져온 극심한 개인주의와 소외, 그에 따른 정신병적 증후군을 치료할 것이며, 인간적인 것의 성질까지 변형시킨 자본주의와 편협한 전체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 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시각매체의 절대적 우위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컴퓨터매체문화가 지닌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자본주의와 편협한 전체주의의 폐단 속에 함몰되고 말았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단절·분리·분열의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철저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나락으로 빠져들었고, 개인은 소외·강박관념·우울증 등 정신

병적 증후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시, 시조 역시 ‘보는 시’, ‘관념의 시’로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그들만의 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고통은 음악과 결별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말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살린 4음보 율격, 민족의 철학과 정서를 담은 3장의 정형성과 리듬, 표음문자인 우리말의 목소리와 결별하면서 추상과 관념에 빠지고 현학적인 표현에 매몰되고 말았다.

이제 추상과 관념에서 벗어나 일상의 생활, 자연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현대사회가 직면한 절박한 문제의 근본 바탕에는 문자 권력이 조성한 인간중심주의가 존재한다는 자각을 통해 생태학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시조는 순수 자연과 인간의 몸이 전해주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진정한 행복과 발전은 정복과 탈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공생하며 다른 것들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깨달음이 절실하다.

민족의 일상적인 생활과 정신을 담아냈던 시조가 생태학적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컴퓨터매체 변화가 가져온 장점들, 즉 평등·자유·인권·조화·친환경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야 시조의 세계관이 글쓰기의 세계관으로 이어져 모든 인간 관계와 사유 방식의 내면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생태학적 세계관이 인간 관계에도 빠르게 적용되어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본주의 이념이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편협된 전체주의 이념을 몰아내고 진정한 행복과 발전,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조의 이 모든 변화는 시조의 전통적인 표현 형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재창조되어야 한다. 시조의 미적 가치는 음성의 조화, 율격, 리듬 등 표현 형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분리와 단절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시각의 본성에서 빠져 나와 조화와 통합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청각의 본성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을 것이며, 적어도 시각과

청각, 문자문화와 음성문화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시각 매체 우위가 가져온 단절·분리·분열·소외·정신병적 증후군 등등의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현대사와 시조, 글쓰기의 병폐를 획기적으로 치료하여 진정한 행복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姜明慧, 「時調教育의 현황과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 『時調學論叢』 第20輯, 韓國時調學會, 2004.
- 권영민, 「시조의 시적 형식과 그 창곡의 음악적 형식과 상호 관계」, 『韓國學報』 12집, 1978.
- 권오경, 『고전시가작품교육론』, 月印, 1999.
- 김대행, 『노래와 시의 세계』, 도서출판 역락, 1999.
- \_\_\_\_\_, 「時調形式의 意味」, 『時調學論叢』 第11輯, 韓國時調學會, 1995.
- 김학성, 「시조의 정체성과 현대적 계승」, 『時調學論叢』 第17輯, 韓國時調學會, 2001.
- 류수열, 「시조의 자연, 그 '말없음'의 의미론」, 『時調學論叢』 第20輯, 韓國時調學會, 2004.
- 류해춘, 「한국 시조문학의 존립 기반과 그 본질에 관한 시고」, 『時調學論叢』 第19輯, 韓國時調學會, 2003.
- 민병기, 「현대시와 전통을격」, 『현대시의 전통과 창조』, 열화당, 1998.
- 원용문, 「시조의 형성 원리」, 『時調學論叢』 第17輯, 韓國時調學會, 2001.
- 이산호, 「콘텐츠를 위한 한·불 정형시가 낭송법의 비교 고찰」, 『時調學論叢』 第17輯, 韓國時調學會, 2001.
- 이영지, 「시조창작론 - '물'과 '불'의 시조 창작적 一例」, 『새국어교육』 52, 새국어교육학회, 1996.
- 이찬욱, 「時調 朗誦의 콘텐츠화 研究」, 『時調學論叢』 第19輯, 韓國時調學會, 2003.
- 임종찬, 「現代時調 作品을 통해본 創作上의 문제점 연구」, 『時調學論叢』 第12輯, 韓國時調學會, 1996.

- 정기철, 「大韓民報 所載 時調의 형식적 특성과 글쓰기 교육으로서의 含意」, 『時調學論叢』 第18輯, 韓國時調學會, 2002.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9.
-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0.
- \_\_\_\_\_,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 월인, 2000.

<Abstract>

## Writing and Sijo in new media culture age

Jung Ki-chul

Visual media are taken the highest position in modern society. Modern poems also have been changed into visual poems. This aspect is the result of considering only individual talents ignoring traditions.

Now, new Sigo should be concentrated on the mythological and historical voice from true nature and the body of human being. That is, ut should be converted into an ecological world view resolutely and restored a form of expression granted specific characteristics of our language.

Advantages the computer media have brought, that is, equality freedom, human rights, harmony, pro-environmental value, can be maximized by positively accepting an ecological world view of Sijo which had included daily lives and spirits of the nation.

Moreover, these all changes of new Sijo have to be established and recreated in the traditional expressions of Sijo. Aesthetic value of Sijo

should be found in the expression forms such as phonetic harmony, rules of versification, rhythm, and etc.

Then, we can overcome modern society's pathological phenomena such as severance, separation, dissolution, estrangement, psychiatric syndrome and etc. which visual media superiority brought. At the same time, it will cure ills of modern poems, Sijo and writing epochally and can establish true happiness and development.

*Keywords* : Traditions, Unified moral rules, An Ecological world view, Objectification of subjectivity